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부활의 기쁨

벧 전 1:3~4 고 전 15:20

李 昌 雨

기독교로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같이 아니 그이상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세상으로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복음이지만 더욱 큰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복음의 이유인 까닭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점은「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못하니라」(롬3:23)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중에서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인간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삶과 새 소망으로 살게 해주셨다 벧전1:3~4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이며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 소망의 근거요 새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부활의 기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소원이요 하나님의 무엇보다 큰 선물인 영생은 각자의 부활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신앙도 헛되고 구원과 소망도 근본적으로 넘어지고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전15:20에 하는 말과 같이「그리스도는 자는자의 첫열매가 되셨다」고.....

추수때 일군이 곡식을 거두는데 첫열매부터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는자의 첫열매로 자는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한사람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다 이는 저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에서 보는 하나님과의 행복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에 있어서의 몸의 부활과 동시에 현재에 있어서도 부활의 중요한 뜻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연약한 육체를 가진 몸이 만약 무거운 시련을 만났다 하더라도 속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이 육체속에 살고서 이미 축복을 받으면 주와 같이 사는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전교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중심였다 그리고 한주의 마지막날에 지켰던 예배가 한주의 첫날을「주의 일」로 바꾸어졌다 그후로는 매주일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큰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부리의 부활이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구원인이므로 부활절은 수난주를 뜻이 깊게 지키는 자라야 그기쁨도 크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 우는자가 아니면 그은혜도 모르게 지나갈 것이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

는 인류는 핵무기를 발견하여 그것으로서 세계는 불안과 위기중에 떨고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박인 인류임으로 당연한 일인지 모르나 그러나 세계를 망하게하는 죄와 죽음을 비극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주십니다 자기손으로 세계를 망하고 또 자기도 그죄의 노예가 되는 그에 중심 그리스도 한사람만 그무덤을 깨드리고 이기신다 그럼으로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운겨울으로 인하여 열매나 잎이시들어 떨어진 초목이라도 봄에 새생명에 소생하는것같이 우리도 굳게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안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교회도 언제나 부활의 교회다 부활의 기쁨은 한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세계의 기쁨이다

자기나라 말을 알아야 한다

유 원 근

교회청년대표들이 예비총회에 참석한데 대한 그들의 느낌을 복음신문에 실린 글을 눈여겨 보았다 기성질서에 대한 (자기)나름대로의 욕구불만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나 일본의 극단적인 자유주의화경하에서의 의사구조와 생활에서의 사고를 몸소 겪지못한 흠이 본국인에게는 있기는 하되 일본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교회구조체참여의 욕은 순수하게 취급받아야 하겠으나 어떻게 하는 '방

법, 에는 비판받아야할 여지가 있으며 청년들이 요구하는 이전에 자성해야할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본국인으로 유감스럽게 느껴지는 문제는 재일한국인이 세운 교회에 속하는 재일한국기독교인임을 자부하여 인식하면서 왜 우리말로 의사를 발표못하는가에 있다 사실 해방후 본국의 정치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에 겹쳐 국토의 양단으로 초래된 민족분열에 설

상 가상적으로 한국동란은 교포들을 하여금 오래 거주한 일본땅에 정착심을 굳히게 하였다 일제는 통일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 삼세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자기만을 생각해서 살면 되지 하고 민족과 국가시념은 무관심에 흐르기 일쑤다 그러나 일본사회가 교포에 대하여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여 전통적 차별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니 한국인이란 일본사회내에서의 멸시를 당하는 존재임을 인식했을때 일본민족으로의 이행도 불가능하고 자기민족으로부터도 유리되어 있다는 그들의 현실은 자연히 교포청소년을 고립적 존재 또는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자폭자기하기 쉬우니 굴절당한 청소년의 정신구조가 본국인으로 볼

것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재일60만의 특수한 역사를 담당한다는 자의식과 책임의식에서「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자세를 가지려는데 있어서 재일한국인의 문화와 전반 삶의 원천인 민족적감정과 민족의식을 솔솔히 생각해서는 안되는 일일뿐더러 오히려 교회가 참된 민족의식을 60만동포에게 생수와 같이 솟아나도록 그원천이 되어야 할것이다 3·1절 정신이 한갓 협소한 민족주의에서 난것이아니라 민족의생존권을 주창한다는 보편적인권에서 난것이며 순수한 민족성의 자연적발휘인것이니 오늘의 3·1절은 재일60만 동포의 생존권을 주창할뿐더러 순수한 민족성을 자연적으로 발휘하여 일본땅에 한국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만드려내며 한국인의 특수적인 역사를 빛나게 하여야 할것이다

—전 연복—

때에 가깝기 한이 없다 이렇게 약소민족으로서의 뼈저리게 사무치는 비극의 실마리를 보면 일본제국주의자의 소신을 분명한배지국의 일본정부가 과오를 뒤우쳐 차별정책과 병행하는 동화정책을 지양하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참정권인정 지역 사회 원으로서의 전적인 평등대우를 실시한다면 모르나 그런 이상을 바랄 수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할 길 밖엔 없지 않을까?

즉 하나는 차별을 감수하면서 일본인화로의 길 궁극적인 기화인이 되는 길이다 나머지 길은 민족주체의를 회복하여 차별을 물리쳐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이다 이 양자간의 선택이 재일한국인 및 그들 자제들이 당면한 과제이나 완전일본인화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민족에 대한 모독이며 굴욕적이란 비난도 받는다 그러나 년년 기화인구가 증가하는 (2편으로 계속)

여전도회 4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기도의 교훈

누가 18:1 ~ 14

바야흐로 봄철을 느끼는 이때 추위와 눈보라에 있을 떨고 죽은듯이 서있던 나무들의 소생하는 모습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겨울동안에도 계속 내부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통하여 힘있게 호흡작용을 한 나무들은 봄바람과 햇빛을 받아 청초한 초록빛으로 생기 가득히 단장할수가 있습니다 허지만 결보기에는 똑같이서 있어도 이 호흡작용을 끈치거나 바로 못한 나무들은 아무리 따뜻한 대기에도 싱싱하게 다시 살아날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멎으면 육신이 숨쉬고 건강해도 영은 이미 병들어서 죽은 생활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것을 가르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18:1~8의 비유에서 기도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저절로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반드시 상대방을 움직이고야 합니다 이로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변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높이신 뜻을 깨달을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몰랐던 큰 것 구한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18:9~14의 비유에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교인의 기도는 하나님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려 하지않고 결눈을 팔았습니다 옆의 사람을 보고 그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실로 진실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지극히

히 절실한 것이라면 옆의 무엇에도 여념할수가 없읍니다 이에 반하여 세리는 하나님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마음속으로부터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태도에는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아니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앞에 옳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 세리였고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다 된듯 자만하고 있는 성자보다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간구하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느편에 해당할지요.....나의 부족과 죄된 모습에 안락하워 절실히 주님께 부르짖기 전에 나의 주위를 향하여 결눈질 하기에 더 바빴던 나를 깊이 뉘우치는 바입니다 먼저 나의 누추한 모습을 통감하여 주님의 자비를 열심으로 구하며 그와같이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교회와 나의 처재를 위하여 정성을 다 해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쁨으로 봄을 맞는 초목들과 같이 우리도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을 즐거이 환영할수 있도록 영의 호흡작용을 날마다 활발히 하고자.....

X X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지러운 세태와동

속에서 저희를 구원 하옵소서 더욱 겸허와 진실로써 열심히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이 온 땅우에 주님의 높이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피 담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비읍니다

《아 멘》

—알림—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18,19양일간 奈良市에 있는 桃山荘에서 각 지회 회장 서기 회계를 중심으로 연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4 지방의 여러 교회 임원들 51명이 성의 있게 모여와 그리스도안에서의 귀한 성도의 교재를 이루며 보다 새로운 방법을 성경공부 우리들의 교회봉사생활 분반도의 실습 그리고 여전도회 운영등을 환분 환분의 의견을 나누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모임에 부녀국장 홍영기목사님 부원 정인수목사님 김원치목사님 한재수목사님 신영자전도사님 모두 함께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여전도회 연합회의 김향운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님들께서 분주하신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시며 모임의 준비를 가추는 일에 정성으로 협조 하신데 대하여 감사 합니다 더욱이 총회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시간에 같이 참여 하시며 좋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부녀국과 여전도회의 여러 분이 함께 깊이 감사 하는 바입니다

(총무 이영숙)

1면부터 계속

자기나라 말을 알아야 한다

현상은 재일한국인의 마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 타민족과 비교하여 이 민족과의 동화속도도 아주 빠른듯 하다 통계에 의하면 부유층과 교육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그에 비례하여 동화율이 높아진다니 본국인으로서 기대가 어

긋나버린다 서구문화의 침단인 미국에서도 China Town 을 형성하여 당당하게 중국민임을 과시하면서 생활 하고 심지어 모비에도 “廣東人某々之墓”라 명기하고 있으니 그들의 태도가 부럽기만 하다 자기 고유의 성명까지도 비한국인을 위

장키 위협인지 일본시명을 본따 행세하는 일부 재일 한국인의 비굴함과 극히 대조적이라 하겠다 이런 예를 들면 흔히들 민족주의자라고 기괴할것이나 제국주의시대의 민족평창주의로 착각하는듯 민족이라면 Taboo시하는 경향이 교포 사회엔 유달리 민감하게 받아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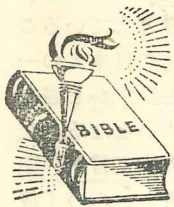
최근 공산권의 분열은 이념보다 피가 절다는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자기 민족과 국가를 애착심과 존경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동화속도가 빠르며 언어의 동화도 마찬가지이다 일세 부모들이 조금 더 그들 자녀를 위하여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였어도 오늘과 같은 이상현상은 최소한 막을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거주지사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겠으나 가정에서의 교육도 그에 비길수가 있다 일세 부모들은 가정교육의 중대성을 등한히 하여 자녀들을 일본사회안으로 무방비상태로 방치하였다 또 정부당국자도 장기적인 교포교육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 해야 한다 또 재일한국교회도 교포사회안의 복음전달면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넘길수는 없다고 본다

일본어동화의 물결이 지금 재일한국교회에 충만하여 한국인이면서 자기나라 언어를 모르고 설교를 들을수 없는 진경이 보편화했다 그래서 모른다는 이유에서 이, 삼세를 위해서는 아예 우리말은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경향이며 또 슬프게도 교사자선들이 우리말에는 자신이 없다 그들 자신으로는 듣기는 하나 표현을 전혀 못한다 자기부모들의 대화를 들었기에 청각엔 익히나 있으나 입은 열리지 않으니 이것을 봐도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알수가 있다 또 어떤교회에서는 우리말로 설교한뒤 일본어로 요약해서 설명을 가해주기도 하여 예배의식동안 듣지 못하여 교역을 치루는 이, 삼세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세대의 차는 언어의 장벽을 한걸 더 쳐 놓았다 이런 히구인지 비구인지 분간못할 사태가 교회내에서 현실화했으니 차후 십수년후이면 가히 짐작할 “운명”이 실제문제로 우리교회가 직면하게 될것이 아니겠는가 몇년전에 교회내에서 우리말 교육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되었을때 일부 인사들은 복음전도에 언어는 모두가 이해할수 있는 말 즉 일본어 사용도 무방하며 알아 듣지 못하는 본국말을 쓸필요가 없고 또 교회에서의 언어교육을 인정할수 없다는 견해로 임했다고 들었다 그런분들의 의견대로 재일한국교회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그 모습을 어떤 감회로 대하고 있을가 관은 재일 대한 기독교이나 내용적으로는 일본교회화의 심도가 여실하니 방편만으로 일본화의 “매”를 기대릴수가 있겠는가 복음전달의 내용을 언어적인 것으로만 생각한 재래적인 교

회전도의식에서만 보드래도 재일한국교회의 갈길은 전환기에 서 있다 언어적인 한계점내에서도 우리는 자기고유의 언어를 사용치못한다는 사실에 교회존립의 심각한 문제가 내존한다 교회가 잃어 버린 양을 찾아야 교회가 역사의 완성에 참여하는 길이라면 소외당하여 숙명처럼 허탈감에 잠기고 있는 교포들을 방치당한 그대로 무관심과 무력속에 둔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될것인가 재일 한국 교회가 전배들이 쌓아 올린 그교회를 재일한국교회화하는게 생명이 있고 사명감이 엄존하지 않을까 위선 한인교회화의 첫걸음은 우리말을 찾는게 있다 일본인사회에서 자신을 발견했을때에 자기나라말을 잊을이가 없다 급선무는 주저 말고 자기나라말을 도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나라말을 알아야 한다 교회청원들이 교회운영발언권을 얻으려는 노력과 그들이 교회장내를 논하는 의도는 재일대한국독교회발전을 염원하는 중심에서 일어났는 것인 만큼 한인교회가 일본교회화에의 길을 가속도로 만리는 현실에 적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자기나라말을 찾는 힘이 교회를 한인교회로 복원시킬 뿐더러 교포사회에서 등불을 켜는 역할을 다 할것이다 적어도 자기나라말은 알아야 한다

(在日大韓基督教会本国連絡責任者 俞元根)



聖書

苦難と忍耐

コリントⅡ 6:1~10

1. 人生において苦難はつきものであるかのごとく人間は誰でもこの苦難によってさいなまれる(ルカ7:12~13)。パウロも自分が受けた苦しみについて語っている。彼は神の恵みをいたずらに受けないためにこの苦難があるといっている(第二コリ8:2)。人間は苦しみと会すると、それこそ苦しまぎれにも、主に苦情をいったり、反発したり、否定したりするか、又は神から遠く離れて再び主にもどって来ない背教者になる場合もある(第二テモテ4:10)。パウロはこの常人のできない程の苦しみを受けても神の僕としての証しをたてたのであった。極度の忍苦、艱難、危機行き詰まり、むちにうたれる(第二コリ11:11)、入獄、騒乱、労苦、徹夜、飢餓等、苦しみと完全である逃げ道のないこの徹底した苦しみを神の恵みと感じて忍耐をもって勝ち抜いた(行16:22, 17:5)。

2. 忍耐とは言いやすくて実

行には実に難しいのである。私たち凡人でも少しばかり怒ることを遅くしたり、その場だけなんとかしてこらえるならば、毎日を平穩無事に暮し得るのである。そしてしばらくしんぼうすれば、苦しみと聞いたことが逆になることが多い。パウロはこのことを体験をもって語っている(第二コリ1:6~8)。人に知られていないようであるが認められ、死にかかっているようであるが生きており、懲め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が殺されず、悲しんでいるようであるが常に喜んでおり、貧しいようであるが多くの人を富ませているといっている(ルカ1:67~71)。

3. パウロは苦しみに会っている人に対して、苦しんでいるその日は実は恵みの日であるといっている。そのことを遠く昔の預言者イザヤが(イザヤ49:3)イスラエルに、バビロンに捕囚とされて苦しみ

訴えたその民に対して、恵みの日にあなたの願いを聞き入れ、救いの日にあなたを助けたというその預言を引用して、その救いの日は苦しみに泣いているその日が救いが

やって来た証拠である、といっている。見よ今が恵みの時、見よ今は救いの日である。神の恵みを本当にしっかりとつかまえて喜びと平和と楽しみにみちた人生を送りたいものである。どんなに思われる苦難にあっても、神はその苦難に勝つ力をえ、耐え忍ぶ(第二コリ4:8)ことのできる聖霊の力を与えて下さる。神のために苦しむことはむしろ情熱をもって愛を慕い、潔白に信仰を守る動機となる(第二コリ7:11)。

会礼拝は地方会々長洪永一牧師の「教師の責任」と云う力強い励ましの説教をもって教育大会を閉じた。

東は宇部から南は熊本にまで散在して福音宣教に奉仕している牧師、教会学校教師、青年会役員が主体的に主題と関わりをもち、それを自己の問題として取り組み使命完遂に前進しようと云う気迫が見受けられた。

(教育部長 金 栄植)

西南地方教育大会

教会学校の自己変革



宣教60周年の記念行事としての教育大会が、西南地方に於ては、遅ればせながら、去る2月11日小倉教会に於て開催された。この大会の方向性については、教育部及び地方会任職委員会で検討、討議した結果、上記の主題を設定した。大会が開催されるまで、実際に教会学校の場合に於ては、遅ればせながら、去る2月11日小倉教会に於て開催された。この大会の方向性については、教育部及び地方会任職委員会で検討、討議した結果、上記の主題を設定した。大会が開催されるまで、実際に教会学校の場合に於ては、遅ればせながら、去る2月11日小倉教会に於て開催された。この大会の方向性については、教育部及び地方会任職委員会で検討、討議した結果、上記の主題を設定した。

扱て大会は総会長金徳成牧師の「羊を養う教育」と云う題のもとに、羊を養育する事はイエス・キリストに依って我々に課せられた永遠的使命である。しかし如何に養育するかは時代に生きる我々は現実を深く把握し、現実をそった方法を見出さねばならず、教師たるものは安易な気持ちで手軽に教会学校を処理する事は絶対に許されない。今の最大の問題は教師の生徒に対する愛情の欠如、無責任さにあると力強い説教をされ、多年教会学校に奉仕された教師八人が表彰された。

その後小倉教会婦人部の暖く愛情にみちた昼食を済せ、「在日 韓国人 教会学校の自己

変革」の主題講演が崔昌華牧師によってなされた。講演の内容は、教育の一般概念からはじまり、教会学校の将来の志向性まで、もり沢山な話であった。特に総会の基本的教育姿勢が如何にあいまいで、統一性がなく、単発的であると指適され、早急にキリスト教々育の総会独自の理念の設定、それに基づき教育効果をもたらしするための機構改革をなすべきであると強調し、また教会学校に於ては福音理解が先決問題である。そのためには教師自身が使命に対する自覚をもたねばならぬと結んだ。

講演に対する質疑応答の後教育主事姜貞子伝道師から総会教育局の全般的な報告及び主事の役割等の説明がなされ、分団討議に於ては生徒の教師への不信感とか、生徒による自主礼拝等が論じられた。

大会最後のプログラムの閉



在日本韓国YMCA

指導者協議会

開催される

去る2月10,11日韓国YMCA(俞錫濤理事長)の指導者協議会が御殿場東山荘の齊藤記念会において、理事、監事、委員、クラブリーダー、職員等17名が参加して開かれた。

会は10日午後6時30分より俞理事長の開会辞によって始められ、その後姜玟奎氏(世界学生キリスト教連盟アジア地区担当主事)による「今日のYの問題」と云う講演がなされた。引き続いてパネル討議に移り、①韓国YMCAの基本的姿勢文錫総務②会員事業一金聖恵、金広熙氏③教育事業一李泰雨幹事④拡張事業一黄在烈協同総務⑤調査研究事業一孟哲輝委員⑥国際親善、奉仕事業一李仁夏委員等の発願を中心に昨年一年間の事業の評価をなした。

明くる11日午前中総合討議に於いて新年度事業について討議した結果、①韓国YMCAの事業の主な対象を在日韓国人であることを確認して、今後事業を展開するが、そのためには在日韓国人の実態を正しく把握する必要がある、このために研究調査活動を行う。さらに、②会員事業を強化し、新会員の募集及びリーダー養成につとめる。③韓国語講座を充実させる。④会館の新築及び関西地方にランチを設立する。⑤国際親善事業ならび奉仕活動を強化して韓日民間人の交流を強める等を決議し、会をとじた。

3.1節を今日に

韓民族が民族的に完全な韓国人となったのは、1919年3月1日であった。この日、韓民族の血がそのまま韓国人の血として流れ、韓民族の民族性が一つとなって結集し、日本帝国主義の堅壁に無抵抗の火矢を打ちつけたのであった。人間の最も素朴な姿は、その民族の純粋な民族性を喜び懐しむ心情であり、最も強力な力は、その民族の生存権を主唱する運動である。文化も、経済も決してや政治こそ民族的感情より、ほとぼしり出るもののみが歴史に永く残るほどのものを生み出すのである。植民地政策の下では、その民族の抵抗と闘争だけが、育ち行く程の文化の生れる由もなく、経済の地盤をかためる途もあり得ない。民族的意識が自然に、素直に、ありのままに、温く生かされ、育まれ、深く込み込んだところから、素直な文化が芽生え、結実して行くものである。3.1運動は、民族の歴史の源泉である民族意識の

発揚であり、民族性の泉であった。今日の時点に立つての3.1節は、自主独立国民としての歴史の中にあって、今日の我々の3.1節として守り抜かねばならない。在日60万の特殊な歴史を担う者としての責任意識より、「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の姿勢で行くこととする我々は、在日韓国人の文化と生のすべての源泉である民族性を外に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のみでなく、寧ろ教会が真の民族意識を60万同胞の中から泉の如く湧き出さしめる源とならねばならない。3.1精神は狭少な民族主義から出たものでなく、民族の生存権を守らんとする普遍的な人権の発露であり、純粋な民族性の自然的な発揚であった。今日の3.1節は在日60万同胞の生存権を主唱するのみではなく、日本の地に輝く韓民族の生命と文化を築き上げる民族の大業の原動力とならねばならないのである。 一田 永福一

出入国管理法案反対集会連帯表明

昨年(1962)の第61通常国会において、審議未了、廃棄となった出入国管理法案が総選挙で300議席獲得という自民党の圧勝のもとに、この70年度において再度国会に上程されようとしていることは周知の通りであります。このことは在日外国人の運命、すなわち在日外国人の90%を占める在日韓国人の運命、強いて申すならば日本国民の運命をも決せられんとしているのです。

今日、この反対集会の席上において、限られた時間内で出入国管理法案の本質、ねらい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を集約的に語りたいと思います。

現行の「出入国管理令」は大陸法とは異なり、出入国に関する関心の強いアメリカ移民法の影響の下に作成され、アメリカの移民法の他民族や他人種の移民統制、管理、即ち移民対策から生まれたところの抑圧的機能部分を日本の状況にあてはめ、補足を加えた形で全体に構成されたものであります。すなわち現行令は法的見地に立つと治安立法的色彩が濃厚であるため非常な反対運動が展開されたのです。が、その反対の「アミ」を巧みに潜り抜けてできたのであります。このことから日本政府は「日韓会談」の進展にともない、1963年以来法務省内に「出入国管理令改正準備委員会」を設け、「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の実施にともなう「在日韓国人の管理」のために立法化を進めて来たのであります。

そして現代におけるその立法化の理由として現行令は制定後17年もち、航空機などの交通手段の発達、万博などで出入国者の激増に即応できないために「出入国手続きの簡素化」をはかるとか、「在日外国人の在留管理体制の整備」をはかるとか、「法律126号は、廃止しないから在日韓国人には関係ない」とか、好ましくない不良外国人の入、在留取締りのためなどがその理由としてあげられています。しかしそれらの理由は「法案」の真のねらいを覆い隠すための並弁であったのです。法案の具体的な内容を見ればわかりますように、現在の日本憲法、行政法あるいは刑事訴訟法の体系をふみにじっているのです。基本的性格には政法警察的法律

案、治安維持法的内容を内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

す。つまり在日外国人に対する「出入国手続きの簡素化」とは在日韓国人をほしいままに規制を強化し、強制送還するための「手続きの簡素化」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在日外国人の在留管理体制の整備」とは、私たちが在日韓国人が旧日本帝国主義による不当な朝鮮支配と国富収奪との結果、よごなく、あるいは、全く強制的に連行された者の子孫であることを忘れて、逆に私たちの生活と社会活動の全般を「治安問題」として監視し、取り締り、政治的弾圧を強化しようとするに他ならない。また「法律126号は、廃止しないから在日韓国人には関係ない」とは在日韓国人60万の分断に他ならないのです。

そして好ましくない不良外国人の入国、在留取締りのため、外国人在留管理の合理化をはかるとことは、「不良外国人の取締り強化」という政治的意味はほかでもなく、政府の全く主観的な「国益」すなわち「日本国の利益」というあいまいな概念に反するとされた人々の呼称に他ならないのです。

戦後において、日本帝国主義支配の最も不幸な、犠牲者であった私たちが在日韓国人を不当にも社会的に、経済的に差別、抑圧してきた政策を70年代において延長、拡大として、いままでにない厳しい弾圧規制を行おうとする企てが含まれているのです。その主要なねらいは、法律という形でもって在日韓国人の分断、同化、追放を法的側面における最終的総括であることは明白であります。

政府は「法的地位 200 の質問」の中において「外国人は自国以外の他国に住む権利というものはない」とか「国際法上の原則からいうと煮て食おうと、焼いて食おうと自由である」といっているのです。これが入管法思想であり、本質であり、意図するものであることはいままでもありません。

最後に皆さんに強く問うてみ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人であることが、貧乏人であるだけの理由で強制退去されねばならないのか。韓国人で

あるがゆえに黙秘権も、司法関与さえも、基本的人権をも奪い取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なぜ私たちが人間の固有な特性、あるいは本性でああ主体性をもって生きること、すなわち在日韓国人が在日韓国人として生きることがが、人間が人間として生きることが罪人であるかのように取締られ、規制され、抑圧され、追放されねばならないのか。このことはもはや在日韓国人の人権の問題だけではなく、日本人自身の人権の問題であるのです。私たちの同胞が、兄弟の何百人、何千人が日本政府の圧迫を受け苦し

み、悲しんでいる事態を私たちはもう見過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この非人道的な悪法を、この事態を日本国民が、私たちが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が、教会が——もし再度誤って、魂にだけにかかわるという理由で——黙認しようとするならば、それはそのような悪を助長させるだけでなく、その政策に参与し、一役買っていることに他ならない。私たちはこの問題から逃げ去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の場において決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日本国民は自己の民族、国家を愛するがゆえに法案阻止をせねばなりません。私たちが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は同胞への愛のゆえに、隣人への愛のゆえに法案粉碎に立ち上がり、戦わねばならないのです。

(国際連帯会議委員 朴光福)

連 帯 表 明

松 井 義 子

特別国会が再開されたさる2月14日の佐藤首相の施政方針演説……70年代への指針として、各分野にわたる、私共が新聞で読む限りでは、まことに調子の高い美しい理念に貫かれた名文であった。ことに私の心を捉えたのは、国際的課題としては、「自由を守り平和に徹する基本的態度」をもって、「すべての国との友好関係を樹立し」、更に国内的には、「人間尊重の精神に基づいて」とか「民主主義の擁護」という、立派な言葉の羅列であった。しかもその上、「今後のわが国は自信を持ちつつもおごらず、古来の美風たる謙譲と勤勉さを失うことなく、日本という国が存在することが、人類を豊かにするゆえんであると世界からひとしく認められる、そういう国を築き上げてゆきたいと念願する。」と結んであった。私も文字通りそういう国になりたいと思った。この点では、首相にまさるともおとらぬほどの熱意と希望をもっている。

さて、このたびの国会に再上程が予定されている出入国管理法案であるが、以上のような佐藤首相の施政方針が、その言葉通りのものであり、単なる空念仏でないとするなら、一体、私共はこれをどう受取ればいいのか。昨22日の朝日新聞にも、「もしこの法案が成立すると、日本国民とアジア諸民族の友好交

流が著しく妨げられる」として、国際親善団体が連名で、この法案の再提出反対の声明がなされている。これが単なるイデオロギーの相違とか、偏向の立場からの主張でないことは、これまで数えきれないほどの、日本政府の入管政策にまつわる痛ましい人権無視の事実が証明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前国会に出された法案なるものの内容を、素人が一寸のぞいただけでも、そのあまりにも非人道的、非民主的な民族的差別に裏づけられた悪法であることに、息をのまずにはおれないのである。私の愛する祖国日本が、このような時代錯誤的な、それは「いつかきた道」ともいうべき、かつての特高警察時代を連想させるような内容をもつ法案を、こともあろう

に、世界の人々にみつめられる国会へ出そうと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その日本人の一人として何とも恥ずかしさと申訳なさで一ぱいとなる。なかでも、世界人権宣言が神聖に保障しているところの「裁判を受ける権利」までも奪おうとしており、また一たん捕えられれば、強盗、殺人、いかなる大罪人でもゆるされている弁護士との面会まで禁止されるというのであるから、世界に恥ずべき悪法といっても言い過ぎではなからう。まことに失礼な云い分ではあるが、もしかしら佐藤首相は、この恐ろしい法案の内容をご存じないかも知れない。知っておれば、とてもあのような演説を公然と出来るはずがないと思う。

聖書に、「身をつつしみ、目をさましていなさい。あなたがたの敵であるアクマが、ほえたけるししのよう、食いつくすべきものを求めて歩き回っている。このアクマにむかい、信仰にかたく立って抵抗しなさい」(ペテロⅡ5:8)とある。私たちは、がむしやらに、政府のやることだから反対だというのではなく、この人権を食いつくそうとするアクマに立ち向うために、そして佐藤首相が希望している「日本という国が存在することが、人類を豊かにする」ことが本当に出来るように、「泣く者と共に泣き」(ロマ12:15)つつ、この法案に反対する働きを押し進めてゆきたいと思う。そのために、より深く、より鋭く法案の中味をみつめ、学び、具体的な神のおみちびきを受けたいと願う。祈りの切なるによりききたもう神、「友人だからというのでは起きて与えないが、しきりに願うので、起き上がって必要なものを出してくれるであらう」(ルカ11:8)神にあって、現実はいかに暗くとも、真理の勝利を信じて共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ねがう。

印刷の仕事をしませんか

僑文社は在日大韓基督教会をはじめ、韓国人団体などの韓国文を主として、あらゆる印刷をしております。

《資格》

- ★韓国人として自覚を持っている青年(夜間生も可) 日本人でも韓国に特に関心のある方なら可
- ★クリスチャン、または基督教に理解のある方

僑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 話 7 1 6 - 5 0 4 6

